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23일 수요일 음 12월 12일 (4물)

기상정보



흐리고 가끔 비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오다가 점차 개겠으며 서부와 남부지역은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7°C. 낮 최고기온은 7-11°C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0.5-2.0m로 약간 높게 일겠다.

Table showing precipitation forecasts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 for the day and the following day.

Table showing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Jeju Island.

생활·안전 기상정보

Table showing air quality and other weather-related information.

주간예보

Table showing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two days.



월드뉴스

빌게이츠 “날 위해 돈 쓸 데 없어” 소아마비 박멸에 2조 추가 지원

“먹고 입을 것이 충분한 날 위해선 더 이상 돈 쓸 데가 없다... 돈의 쓸모는 모를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구를 만들어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자신의 개인적 필요를 넘는 돈이라며 아낌없이 남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진정한 부자' 빌 게이츠(57·사진)가 최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재물관(觀)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다른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21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인 게이츠가 대학 중퇴자인 자신을 부유하게 만든 세계에 다시 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향후 6년 동안 추가로 18억 달러(약 1조9208억원)를 전세계 소아마비 박멸운동에 쓸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게이츠는 자신의 재산 650억 달러(추정치)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쏟아 붓는 과정에 있다.

이미 부인 멜린다(48)와 더불어 부부 명의의 자산 재단을 설립해 280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 가운데 80억 달러 이상은 세계 보건 개선에 사용됐다.

그는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아내와 난, 우리가 운 좋게 가진 부(富)를 세계에 어떻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되돌려 줄 지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우린 세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소아마비) 예방접종 운동에 뛰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중 BBC '딤블비(Dimbleby) 강연'에 출연해 어린 생명들의 소중한 가치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점을 역설할 계획이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10년 전인 1992년 5세 미만 아동 1200만명이 폐렴, 설사 등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2011년 이 린 아동 사망은 700만명 이하로 줄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매일 1만9000명이 숨진 꼴이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의 5분의 4를 차지한다.

그는 “소아마비를 지구상에서 가장 내면 말라리아와 홍역 같은 질병을 물리치는 데 쓸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자신의 남치는 돈을 계속 쓸모있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립뉴스



백록담



이 윤 형 사회교육부장

취임하기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둘러싼 혼돈이 불거지는 점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 아닐까. 예산문제도 그렇지만 보수진영이 보기에 좌클릭한 복지공약 등은 섣불리 수용하기엔 우려됐을 것이다.

박 당선인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약 수정론에 대해 부인하지만 정부 여당과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출구전략의 1순위는 지역공약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초연금 도입 등을 포함한 복지공약 축소 등도 자주 거론된다. 표면적인 이

벌써부터 출구전략 얘기가 나오나

유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지만 그 기저에는 지방보다는 수도권 중심 시각과 상위층 몇 %의 기득권 지키기가 자리하고 있음이라.

박 당선인의 약속한 100여개에 이르는 지역공약 재원은 최소 1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는 신공항 건설 등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등도 들어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역공약에 대한 기본 원칙조차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를 의식해 공약을 했지만 이를 실현할 재원 마련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는 상당수의 지역공약이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이명박 정부 역시 인수위 시절 대선공약을 국정과제로 전환하면서 지역공약을 제외했다. 때문에 제주사회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도 흑역사 신공항건설과 4·3해결 기초연금 도입 등을 포함한 복지공약 축소 등도 자주 거론된다. 표면적인 이

도 있다. 인수위에 제주도의 입장을 대변해줄 인맥이 없다는 점도 걱정스런 대목이다.

지난 대선 기간 박 당선인과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보진영에서도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에 대해 일면 수긍할만한 점이 있다고 했다. 반면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좌클릭한 당선인의 공약에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다. 권력을 쥐는 일이 급했기 때문이다. 출구 전략 운운은 대선 승리를 위해, 그리고 집권 플랜을 짜는 과정에서 잠시 숨죽였던 보수진영의 불안이 표출되기 시작함을 뜻한다.

어쩌면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과정에서 어려움 중의 하나는 아마 보수진영 내부의 반발에 있지 않을까 싶다. 박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절반에 가까운 국민보다도 보수진영의 반발이 박 당선인을 지지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아니 예감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박 당선인이 취임 전에 대선 공약에 대한 출구전략이나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18대 대선은 사실상 여·야, 보수와 진보세력이 일대일 전면전이었다. 50대 이상은 박 당선인에 표표를 던졌고, 40대 이하는 문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예산을 뛰어넘는 높은 투표율 속에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대선이 끝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멘붕”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변화를 위해 투표참여를 했지만 기존 질서의 강고함에 젊은층의 상실감은 정치 무관심, 무력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지난 대선은 세대간 갈등을 넘어선 전장파도 같은 양상으로 전개됐다. 그 후유증을 다스려야 하는 길은 국민과의 약속은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박 당선인의 행보에 달렸다.

열린마당

발담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의미



강 승 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발담이 '흑룡만리(黑龍萬里) 제주돌담밭'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제주 돌담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10만 리가 된다고 한다. 끝없이 이어진 그 모습이 '흑룡만리'라 부른다. 제주 대표적 경관의 하나인 발담이 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발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하다.

제주의 농경지가 지금처럼 돌담으로 경계 지어인 발담의 생성은 고문헌에 등장한다. 문헌상 최초의 기록은 '탐라지'에는 고려 고종 21년(1234) 제주판관 김구가 돌을 이용해 밭의 경계를 표시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발담의 역사는 제주농업의 시작과 때

를 같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화산섬 제주의 척박한 돌밭을 골라 경작지를 조성하면서 발담은 자연스레 형성됐을 것이다. 발담은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방풍의 역할을 하고, 푸석푸석한 토양의 비산을 막고 씨앗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 또한 방목하는 마소의 침입을 막아 농작물을 보호하기도 한 것처럼 제주농업을 지켜 온 상징물이기도 하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발담은 그간 제주 농업을 키워온 유산이었으나 그 가치는 크게 조명받지 못했다. 이번엔 발담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은 그 가치를 재조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제주 발담을 보존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시범지역 지정 및 친환경농업과 연계, 농촌관광 등 3차산업과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FAO(세계식량농업기구) 세계농업유산(GIAHS) 지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한 바람에 흔들리던 무너지지 않는 제주 발담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은 전통문화와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시대인식이라 본다.

'민간보조금'은 도민의 혈세



양 흥 석 제주시 기획예산과 주무관

올해 제주자치도가 편성한 총예산 3조 360억원 중 19.3%인 5860억원이 민간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됐다. 민간보조금은 제주도 재정에 막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원 받는 단체에선 자산운용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금으로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현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도에서는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과 수익자부담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위해 기준보조율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보조금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민간보조금 시스템에 상당한 질적 개선이 이뤄지고 보조금을 알뜰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민간단체도 많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위법·부당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젠 민간보조금이 '눈 먼 돈'이 아닌 내가 납부하는 정당한 세금인 만큼 투명하게 집행돼야 할 것이다.

우리시에서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매년 상반기 민간보조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금주부터 약 2개월 여 동안 점검반을 편성해 보조금 투명성 점검에 나선다. 점검결과와 보조금의 목적의 사용, 사업의 축소 등 집행과 정산 등에 문제가 있을시 보조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관련단체에 대해서도 조치기준에 따라 익년도 지원을 금지하고, 지원부서에 대해서도 부서 평가시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민간보조금은 '소중한 혈세'라는 인식은 보조를 받는 사업자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담당공무원 모두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중요한 진리이다.

Advertisement for '세상을 향해 말문을 여십시오' (Open your mouth to the world)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ihalla.com.

Large advertisement for 'Hairland' hair care products, featuring '탈모고민 - 머리나라' and '삼푸형' shampoo sets with 50% discount.